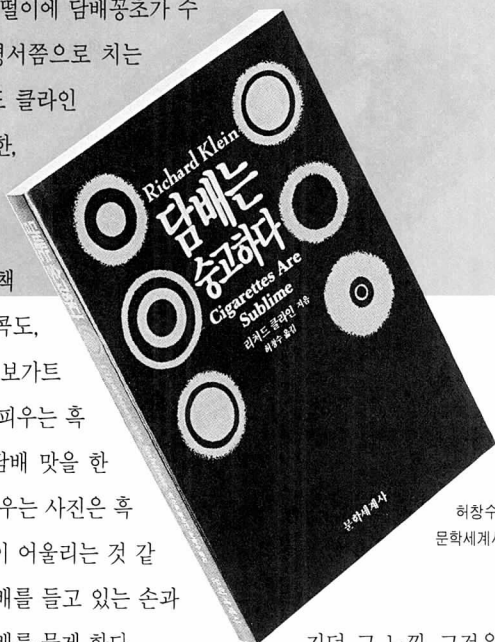


담배, 결코 떨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리처드 클라인의 《담배는 숭고하다》를 읽고

박상천 | 시인 · 한양대 국문과 교수

담배에 관한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도 전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을 단 《담배는 숭고하다》(리처드 클라인, 허창수, 문학세계사)를 읽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재떨이에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여 있다. 문화비평서풍으로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리처드 클라인의 이 책은 담배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줄 만큼 깊이있고 재미있다. 책을 넘기다가 간혹 장 콕도, 사르트르, 피카소, 험프리 보가트와 같은 애연가들의 담배 피우는 흑백 사진이 책 읽는 맛과 담배 맛을 한결 돋워준다. 역시 담배 피우는 사진은 흑백의 약간 어두운 사진들이 어울리는 것 같다. 연기가 모락거리는 담배를 들고 있는 손과 얼굴 표정들이 또 다시 담배를 물게 한다.



허창수 옮김
문학세계사/A5신/306면/6500원

담배를 처음 피웠을 때의 느낌

책을 읽으며 문득 어린시절 불렀던 담배 노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대전 블루스>에 가사를 바꿔 단 <담배 블루스>라는 노래를 곧잘 불렀다. 이 노래에는 '파랑새' '금관' '나비' '파고다' '진달래' '백양' '아리랑' 그리고 '새나라' '채진' 등과 같은 당시의 담배 이름이 모두 나온다. 멋 모르고 <담배 블루스>를 불러 제끼던 것과는 달리 내가 처음으로 담배에 입을 댄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하숙집에 있던 대학생 형이 내게 담배를 한번 피워볼 것을 권했다. 형이 시키는 대로 건네준 담배를 한모금 빨아 속 깊숙이 삼켰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변화. 머리가 '핑' 하니 들었지만 속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난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 곧 담배를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간혹 그 느낌이 그리워지곤 했다.

이제 나는 하루 세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됐지만 아직도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의 그 느낌이 간혹 그리워진다. 머리가 '핑' 들면서 속이 환해

지던 그 느낌, 그것을 재연해보려고 3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참았던 때도 있었다. 3일 만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속 깊숙이 빨아들었을 때, 처음 담배를 피웠던 것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흡사한 느낌을 얻고 나서부터 나는 참 즐겁고 행복했다. 언제든지 사나흘만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그리운 그 느낌을 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내겐 있다. 담배는 그런 의미에서 내겐 하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두려움을 수반하는 부정적 아름다움

리처드 클라인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담배가 해로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담배가 해롭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칸트가 말한 '숭고'의 개념을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담배의 아름다움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부정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는 그 모순이 바로 숭고미를 보여준다는 그의 철학적 해석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담배에 대해 뭐 그렇게 거창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다. 건강이니 뭐니 하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담배를 악마시해서는 안된다. 장 콕도는 담배를 "힘 있는 마력을 가지고 전세계를 유혹하고 지배해 온 일종의 삶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담배의 아름다움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부정적 아름다움이며,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는 모순에서 피어나는 숭고미다.

이 내 생각이다.

간혹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느냐고 물어보고 나서는 '담배 좀 줄이셔야겠네요'라거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라며 날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말들이 싫고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싫다. 그래서 나는 흡연을 질병이나 죽음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죄악시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건강제일주의적 행태들이 못 마땅하다. 《담배는 숭고하다》에서 나의 이런 평소 생각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리처드 클라인이 <감사의 글>에서 "자크 데리다의 작품들과 그의 우정에 빛을 졌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 건강제일주의는 또 하나의 '폭력적 서열제도'가 아니겠는가? 건강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에 목을 맨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 정말로 건강에 목을 맬 것 같아 안타깝다.

《담배는 숭고하다》를 읽다 보면 담배의 아름다움에 관한 명언들과 시 그리고 소설의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내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의 말을 인용하며 담배를 예찬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담배를 사랑하는 이유가 제각각이듯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실 뿐이다.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이다. ●